

## 정부는 지난해 세수부족에도 기금 등의 사업비 집행에 지장없는 범위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민생·경기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.

### <보도내용>

- 2025.3.11. 경향신문은 「세수결손 돌려막기, 산재기금까지 털었다」 기사에서,
  - 지난해 기재부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·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
  - 산재보험기금,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 5조원 이상을 활용하여, ‘기금 돌려막기’ 규모가 지난해 발표한 14~16조원 보다 실제 1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<기획재정부 입장>

- 정부는 작년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세출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민생·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.
  - 적극적 재정집행 결과, ‘24년 일반회계 사업비 불용규모는 작년 재정 대응방안(‘24.10월)에서 발표한 7~9조원보다 낮은 6.1조원 수준이며, 이에 따라 활용된 가용재원 규모는 당초 발표한 14~16조원보다 높은 17조원입니다.
- 정부는 기금·회계별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여유재원 운용 규모 및 통상적 불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.

-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(1.55조원)의 경우 여유재원 규모(25조원)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 보상 등 사업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.

\* 산재기금 수지(조원): ('24) 0.8 → ('25) 1.4 / 적립금(조원): ('24) 25.0 → ('25) 26.5

- 교통시설특별회계(1.1조원) 및 환경개선특별회계(0.4조원)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법정전입금 보다 높은 수준\*을 유지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규모 내에서 활용하였습니다.

\* (법정 전입필요액) 교특 7.8, 환특 2.6조원 < (실제 전입액) 교특 12.0, 환특 5.3조원

-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및 회수를 통해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, 주택도시기금의 본 목적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'25년 예산에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.2만호로 반영하였습니다.

- 외국환평형기금(4조원)은 시장 안정화조치에 따라 발생한 여유 원화재원을 활용한 것으로, 현재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화 능력은 외환보유액과 외국환 평형기금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한 수준입니다.

-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(1.0조원)은 당초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 예정이었던 금액으로, '23년 결산 국회에서 조속한 상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여유자금을 조기 상환한 것입니다.

담당 부서	국고국 국고과	책임자	과장	정동영 (044-215-5110)
	국고국 국고과	담당자	사무관	전형용 (jeonzong@korea.kr)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장	박정민 (044-215-7130)
	예산실 예산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유다빈 (dahbin23@korea.kr)

